

## 서언

본 소책자 <최고의 복>은 여러 관점을 가진 서로 다른 독자들의 필요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근래 출판한 여러 복음지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꼭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창조주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밤낮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필자는 모든 독자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소책자를 자세히 읽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며,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 정몽은(程蒙恩)

2008년 4월 1일

## 목 록

### 一. 복음

1. 세상의 복은 참 복이 아님
2. 복음이란 무엇인가?
  - (1)영원한 것
  - (2)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것
  - (3)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
3. 복음의 내용

### 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1.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2. 사람은 귀신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무서워함
3. 사람은 장래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4.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

### 三. 하나님이 계십니까?

1.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 (1)사람에게 영이 있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
  - (2)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
2.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줌

### 四.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1.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심
2. 우상은 하나님이 아님

3. 참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심
4. 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

## 五 .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까?

1.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심
2. 성경은 우주의 근원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
3. 성경의 계시는 과학의 발견과 일치함
4. 노아 방주의 증거
5. 이스라엘 건국
6.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함

## 六. 예수님의 구원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2.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
3. 예수님이 구원하심

## 七. 예수님은 구세주이심

1. 종교 교주는 하나님이 아님
2.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
3.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
4.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

## 一. 복음

모든 사람은 복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글귀를 쓴 것을 붙이는데, 그 내용은 모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길 기원합니다' 등과 같이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복(福)'자를 크게 써서 문 입구에 거꾸로 붙여 놓기도 하는데, 이는 내년도에 큰 복이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복을 갈망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안되고, 자주 일이 원래 뜻과는 달리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많은 불행한 일, 고통,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사람이 요행히 물질적인 복을 좀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 1. 세상의 복은 참 복이 아님

중국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有福气(중국어 발음 : 요우푸치)”라고 말합니다. "복(福)"자 다음에 "기(气)"자를 덧붙이는데, 실제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복을 얻었다고 뜻할 뿐 아니라 많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의 가정에 자손이 아주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며, 부모님께 불효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생동안 자식을 위해 고생하였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오히려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살고 있으니, 정말 복을 받은 것보다 화를 당하는 것이 더욱 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총명한 아들을 낳았는데,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아 가문을 빛낼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생을 바쳐 아이가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에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나중에 되어서는 이 아이가 오히려 극악무도한 불효자가 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복을 받은 것보다 화를 당한 것이 더욱 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생동안 고생하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여 사업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모두 그가 복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이미 나이가 많게 되었고 몸에 질병도 생기게 되어, 여생에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다 매우 복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항상 싸우니,

복을 받은 시간보다 화를 당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쉽게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화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한 순간에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실제로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있다가, 내일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래 아시아의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채권자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파산하여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부귀라는 것이 뜬 구름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전에 실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은행에서 요직에 근무하셨으며, 생활도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은행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투자관련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천만 달러나 넘는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는 마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가 번 돈을 홍콩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믿을

만한 증권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그만 망해서 문을 닫게 되어 본전도 한 푼 못 찾고, 직업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희극과 같은 일확천금의 꿈이 사라지자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정말 빨리 다가오지만, 사라지는 것도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2. 복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은 "복이 있는 소리", "복이 있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1)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그 복을 얻으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이생에서 영원토록 이르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 장 16 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장래에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살도록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이사야 55 장 6 절)는 말씀과 같습니다.

## (2)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일종의 정신적인 위탁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인생의 여러 환경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해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크게 변화되고 복을 받은 것을 친히 목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을 끊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어떤 부부는 이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3)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순간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그리스를 믿음으로 값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 장 8-9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마음의 평안함을 받게 하고, 일생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 3. 복음의 내용

성경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 장 3-4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무릇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죄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여 변화되려고 하고, 수양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의지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표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 참 복음의 유일한 통로인 구세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 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한번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몇 십년 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세상 모든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며, 이것은 바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성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 1.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식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에는 영, 혼, 몸 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감정, 의지, 생각을 포함하고 있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두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영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라디오가 방송국의 전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전파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전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에게에는 영혼이 있으며,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공자가 “도처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한 분 주재자가 계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죄의 흑암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린도후서 4 장 4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의 필요로 인하여 거짓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로마서 1 장 21-23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냥군에게 쫓겨서 죽게 되었을 때 황급히 우상 앞에 가서 분향하며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만약 어떤 무신론자가, 비록 그가 받은 교육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어 그의 지력, 물질, 권력과 능력이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위급한 때 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2. 사람은 귀신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무서워함

다시 말해서, 동물은 영의 세계와 접촉할 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것을 하나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밤중에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에게 귀신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잠시 후 또 다시 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쫓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귀신을 만나게 된다면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랄 것이며, 이것은 귀신을 만난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원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일단 귀신을 만나게 되면, 온 몸의 털이 뻗뻗하게 세워지게 되고, 직접 귀신을 느끼게 되면, 온 몸이 자기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부터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귀신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3. 사람은 장래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이 밖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장래를 생각할 수 있고 동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진시황은 국가를 통일하고 이름을 날린 후, 오히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많은 사람을 여러 곳에 보내어서 장생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영원함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사람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게 되며,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도서 3 장 11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선조들의 경험이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또한 격언에서는 “이생에서 못 갚으면 저생에서 보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세관이 있음을 말합니다. 옛 현인이 또한 “사람이 죽음에 가까우면 그 말도 선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영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령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양심에 따라 선한 말을 하게 마련인데, 마치 이렇게 후회하는 말로 속죄하려고 하는 것은 내세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4.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

성경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 장 23 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사람을 영원으로 인도하는데, 영생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결국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 장 27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우리의 영혼을 장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양이 되어,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두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 三. 하나님이 계십니까?

#### 1.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 바람, 공기, 전파, 전자, 원자, 중성자, 질량 등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두 종교가 있었고, 오직 인간사회에만 종교가 있습니다. 동,식물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영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격언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1 장 19 절에서 20 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 (1) 사람에게 영이 있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 즉 영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가 그 안에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국의 전파를 받아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격언에서 “궁하면 하늘에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마음의 느낌과 기능을 소홀히 여겨서 인생의 끝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개가 사람에게 맞을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우상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륜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탄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어져서 언제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엎드려서 절하며,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나, 내심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이릅니다. 이것은 공자가 “도처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한 분 주재자가 계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 (2)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을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편 19 편 1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시작, 존재 그리고 운행, 규율, 오묘함, 웅대함은 바로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반드시 설계사와 기술자가 있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합니다. 번창한 도시의 교통망 또한 교통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차량의 흐름을 인도합니다. 하물며 끝없이 펼쳐진 우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별이 주야로 운행하고 있는데, 어찌 정교하게 설계하고 창조한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가운데 각종

행성이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는 규율을 볼 때, 어찌 창조자의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 장 3 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 장 3 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 2.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줌

미국의 우주항공국(NASA) 전임 책임자가 이르기를 “인류에게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교만한 입으로 장래에 신을 내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과학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어 보았는데, 현대에 세계에서 최고로 저명한 과학자 300 명 중에서 약 9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인생 전반기에는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윈도 노년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윈이 그의 이론을 철회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9 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세 명의 우주비행사는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구로 돌아온 후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과학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대 과학계에서는 우주는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 여길 뿐 아니라, 우주는 시작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상세히 생각을 해 봅시다. 태초에는 물질이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 폭발은 혼란만 생성케 하고 질서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변화한 도시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 한 번의 특수한 폭발로 인해서 질서, 규율이 가득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조물주가 창조한 과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과학계에서는 우주가 자연을 초월한 시작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계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장 1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물주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으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주의 근원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연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자연”입니까? “자연”은 단지 우주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신이고,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핑계를 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침륜에 빠져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죄인들에게 내릴 심판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일생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당신이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이생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四. 누가 참 하나님인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참 하나님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심

참 하나님은 반드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 피조물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도시나 동네마다 각기 다른 이름의 우상이 있어서, 서로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 안에 서로 다른 이름의 우상을 몇 개씩이나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냉정하게 이 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은 인류가 만들어 낸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 중에서 어떤 것은 역사적 인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예를 들면, 관우) 이미 흙으로 돌아 간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우상은 전설 중에서도 나오는 인물로 후세의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는 모두 허황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흙, 나무, 구리, 철, 금은 등으로 만들어낸 각종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상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의 말씀(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계시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장 1 절), “만물이 그(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 장 3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충만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는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 호흡, 땅 위의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 2. 우상은 하나님이 아님

손중산(孫中山)선생은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하던지, 아주 기름진 닭 한 마리를 준비해서 불상 앞에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손중산 선생은 한 참을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그 우상이 닭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먹지 않는다고 여기며,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중산은 그 우상이 닭을 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절에 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닭을 누가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우상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쥐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닭 기름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 흘러 내리자, 쥐들이 닭 기름이 묻어있는 우상도 갹아 먹어서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아던 것입니다. 이 일은 손중산 선생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 이 일 이후로 다시는 자신을 지켜 줄 수 없는 우상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라면서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며,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진실하게 그에게 구하기만 하면, 그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상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행기에서 위험을 만났는데, 몸에 우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우상에게는 오히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 3. 참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심

1992년에 홍콩의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탔던 소형 비행기가 큰 계곡을 지날 때 갑자기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직원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즉시 옆에 있던 동료 직원에게 “얼른 나와 함께 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라고 말했으며, 그 직원도 같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한 후, 비행기는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 직원은 깨어나서 즉시 위험에 빠져서 같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였던 동료 직원을 생각했는데 그 동료 직원도 깨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같이 비행기에 탔던 열 몇 명의 탑승자는 모두 조난을 당했고, 단지 이 두 사람만 살아 남았으며, 다친 곳은 발의 뼈만 부러져서 입원 치료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위험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비행기 직원에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당연히 믿습니다. 저의 이 생명 또한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급한 때에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 4. 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의 도덕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반대로 우상은 전혀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상의 사술을 통해 자신이 법을 어겼을 때 붙잡히지 않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장래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긴 죄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왕자가 어떤 거지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며 섬긴다면 원래 그 왕자의 부모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사도행전 17 장 30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케 하셨으니, 이 얼마나 복 중의 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오묘하고 광대한 권의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형제(자매)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심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 五 .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서적과 달리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성경은 일천육백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의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무수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향을 끼쳤으며, 구원을 얻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래의 몇 가지 방향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심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 장 16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물주의 신분으로 선택 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말한 것이 없고, 단지 어떤 사람이 발견은 종교윤리를 논술한 것뿐이며, 그들은 단지 사람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 2. 성경은 우주의 근원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

세상에는 종교경전과 유명한 철학 서적이 많이 있지만, 우주만물의 근원과 인류의 탄생 및 세계의 종말을 예언한 계시는 한 권도 없습니다. 이런 책들은 모두 인간의 머리로 짜낸 것에 불과하여서, 몇 천 년 전의 일이나, 몇 백년 후에 발생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인생의 이치를 조금 찾아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불교의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단지 만물의 “인연” 이라는 인과관계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 자신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굴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여 도를 찾아 나섰지만, 말년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론이 비록 진화의 관점에서 우주의 근원을 해석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제일단세포는 어디에서 왔는지, 생명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겼는지 지금까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종말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유한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와 과정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언한 유일한 책이며, 성경 말씀의 정확성은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3. 성경의 계시는 과학의 발견과 일치함

기원전 2 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지구가 만들어진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이는 성경에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욥기 26 장 7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몇 천 년 전에 지구가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힘으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근대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이사야 40 장 22 절)라고 말씀하면서, 지구는 둥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00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기원전 약 1500 년 전에 성경 사사기 5 장 20 절에서는 “별들이 ..... 그 다니는 길에서 .....”라고 기록하며 우주의 별들은 자기의 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에 과학자들은 전혀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지만, 성경은 기원전 1500 년 전에 이미 사람을 향해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규율을 말씀하고 있었으니, 이것만 보아도 성경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 천문학자들이 역법을 계산하고 태양의 궤도를 연구하면서 시간이 하루가 모자라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원래 성경이 약 3 천년 전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하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멸망의 길에 있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해와 달이 원래 자리에서 멈추도록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로 하여금 약 하루 정도(대략 23 시간 이십 몇 분 정도) 멈추게 하였는데, 정확하게 24 시간은 아니었습니다(상세한 것은 여호수아서 10 장 6-14 절을 보세요). 이후에 천문학자들은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약 40 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았는데, 이를 더해보니 꼭 24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에서 어떤 유대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고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또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 시간을 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본래 앞으로 있는 그림자를 뒤로 10 도 물러나게 했는데, 그 결과 시간이 40 분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상세한 것은 이사야서 38 장 1-8 절을 참조하세요).

#### 4. 노아 방주의 증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 약 천년 후에 인류가 극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하여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120 년 동안 전도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였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고고학자들은 터어키의 아라랏 산에서 거대한 배가 얼음 강물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상세하게 관찰을 한 결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던 방주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창세기 8 장 4 절을 읽어 보세요). 고고학적인 발견이 성경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으니,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5. 이스라엘 건국

일찍이 천하만국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일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나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심지어 맹세하며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마태복음 27 장 25 절)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무수한 재난을 겪었는데,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 백만 명이나 죽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2 천년이나 망국의 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방에 인구적으로나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보다 훨씬 강한 아랍 국가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랍 국가들은 몇 번이나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매 번 전쟁에서 대패하였으니, 그 원인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 천여 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흠어짐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며, 이것은 말세 때에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성경이 예언한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은 1948 년에 정식으로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세에 나타날 재앙에 대해 의심하지만, 사실은 최근의 지진, 기아, 전쟁,

온역, 천재, 인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이미 지구를 2 만 번 이상 멸망시킬 만큼이나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예언을 존중하게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 즉 성경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 6.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함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피조물인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향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무릇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인하여 죄를 용서 받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자가 되시고,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장 16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사람의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리 내어 기도하면 영생을 얻게 되며, 일생을 그 분이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 六. 예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소식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은 설령 이 소식을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 이것은 성경이 증거할 뿐 아니라, 역사 기록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역법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기원후 2005 년을 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2005 년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계가 축하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적십자’ 표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적에 연유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의 보혈을 흘리시며, 세상 사람들이 죄의 형벌, 즉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하신 사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피가 붉은 색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적십자가 구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격언에서 “대속의 양” 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없으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장래에 성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데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비록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표지, 역법 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구세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온 땅에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이런 표지와 역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며,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디모데전서 1 장 15 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 절 23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방화를 한 적도 없고, 물론 국가의 법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범했다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력이 약해서 몇 번이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공격을 가하고,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속의 이런 생각들도 모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량한 시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흉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 장 28 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 장 21-23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 이것은 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원한이 있고, 온 천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투쟁과 암투, 약육강식이 가득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 하더라도, 속담에서 “집집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일주일 동안에 생각한 것을 감히 사람에게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아무데도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이와 같은데,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예레미야 17 장 9-10 절)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성경에서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로마서 7 장 18 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뜻을 정하여 탐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금전의 유혹 앞에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여 성결한 생각을 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생각이 오히려 사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지 격언에서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으면 몸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과학은 날로 발달하고 있는데 인류의 도덕은 오히려 퇴보하여서, 인류는 더욱 타락하고 범죄의 수법은 더욱 악랄해져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인간에게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3. 예수님이 구원하심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 장 6, 8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도 깊다니!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양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믿는 자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 즉,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죄의 권세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사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으니, 예를 들면, 도박에 빠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도박을 이겨내고, 죄로부터 해방된 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더욱 당신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 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일생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형제(자매)님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도 돌아오기만 하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게 됩니다.

## 七. 예수님은 구세주이심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계에는 종교가 없으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우상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서,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히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끊임없이 종교가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까?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겸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종교 교주는 하나님이 아님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로서, 그는 왕궁에서 자랐으며, 29 세에 인생의 허무함을 극도로 느끼고,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 출가하여, 사방을 전전하며 도를 찾아다녔는데, 이처럼 일반종교의 창립자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양하여 소승불교를 창립하고 말년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한 적이 없으니 이 또한 세상의 일반종교의 교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었으며, 모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종교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본체가 성결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행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 장 3 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 장 6 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 2.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

현대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가르침(敎)”이라는 글자를 떠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가르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救)”이라는 글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교주(教主)’라고 부르지만, 오직 예수님은 ‘구주(救主)’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가르침에 힘쓰지만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문을 펴 보면 위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주석)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인주의, 교만, 원한, 꾀사, 악독, 탐심, 거짓, 더러운 탐욕에 빠져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두 아귀다툼과 암투를 벌일 뿐 아니라,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3.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정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설령 완전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잔머리를 다 써서 법률의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무엇이 선악인지를 아는 것 뿐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한대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로마서 7 장 18 절)라고 말씀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격언에서도 “사람이 세상 속에 있으면 몸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시간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어, 대속의 양이 되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마귀, 죄악의 권세를 이긴 생명(즉,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 하나가 고집을 부리면서 바닷물에 뛰어 들어 갔습니다. 이 때 수영

조련사가 비웃으면서 “너가 이렇게 바다에 뛰어 들어가니,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 너는 물에 좀 빠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조련사가 개구리 헤엄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 어린 아이는 물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못 배웠습니다. 이 때 사랑이 많은 한 조련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바다에 뛰어 들어 그 아이를 구해내고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 4.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을 때, 그가 친히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잃은 생명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생겨난 구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은 없으니, 이는 성경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 장 12 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장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마귀,

죽음, 최악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간증이며 경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당신을 구원하셔서 일생동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 자신의 수행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소리 내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당신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을 얻게 되니 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 아래의 기도문을 따라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일생동안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세요.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bsite: [www.ChengMengEn.org](http://www.ChengMengEn.org)

Email: [boxandaxe@yahoo.com](mailto:boxandaxe@yahoo.com)